

전북경제 힘찬 도약 다짐 '신년인사회'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 등 개최... 올해 사자성이 '마부정제' 선정

전북경제의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2026년 신년인사회와 제20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이 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렸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가 주최하고 전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정태 협의회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도내 각급 기관장, 경제계 인사, 기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역 경제 발전을 다짐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서는 '마부정제(馬不停蹄)'라는 사자성이 올해의 슬로건으로 선정됐다. 이는 '말의 발굽이 멈추지 않는다'는 뜻으로,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전북 경제가 끊임없이 전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정태 회장은 신년사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과 소비 위축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공인들의 도전과



전북경제의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2026년 신년인사회와 제20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이 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렸다.

혁신이 전북 경제를 이끌어왔다"며 "앞으로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도 우리 기업들은 혁신으로 극복해왔다"며 "특히 인공지능 기반 산업 구조 개편이 가속화되는 만큼,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과 가까이 소통하며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 ESG 경영, 사회공헌에 앞장선 기업과 경영인들이 상을 받았다. 대상은 친환경 공정과 경영혁신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주)창해에탄올의 이연희 대표이사 수상했다. 본상 기업 부문에는 ESG 경영과 지역 상생을 실천한 풀무원(주) 홍영선 대표, 본상 경영으로 경쟁력을 높인 삼양화성(주) 이영훈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오상근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2일 본점 대강당에서 제14대 박춘원 은행장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전북 대표 은행 위상 높일 것"

전북은행 제14대 박춘원 은행장 취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2일 본점 대강당에서 제14대 박춘원 은행장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박춘원 신임 은행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북은행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인적자본과 문화자본, 시스템 자원을 바탕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해 전략을 세우고 신속하게 실행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 은행장은 향후 추진할 7대 전략으로 △자산포털포лио 고도화 △리스크관리 혁신 △디지털·AI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맞춤형 채널 및

인력 전략 △지역사회와 상생 통한 기업가치 제고 △조직문화 근본 혁신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전북 대표 은행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전북은행은 반세기 동안 위기 때마다 놀라운 저력으로 극복해왔고,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며 "일찍이 모두가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 전략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디지털과 AI 경쟁력,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매진해 전북은행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62개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으로 해외시장 공략 나선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맞춤형 전략으로 시장 개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6년 총 62개의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시장 진출에 본격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은 품목별 또는 시장별로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모여 공동으로 해외 전시회와 상담회 등에 참여해 현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무역 환경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들의 수출국가 및 품목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전년 대비 30억 원(24.5%) 증액한 198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10월 공고된 모집에는 총 199개 컨소시엄이 신청해 3.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심사를 거쳐 62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 과정에서는 소비재와 산업재 분야, 주력시장과 신성장동력 균형을 고려했다.

품목별로는 뷰티와 패션, 라이프스타일, 푸드 등 소비재 분야가 46.8%, 철강, 기계금속, 전기 등 산업재 분야가 38.7%를 차지했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 모집은 연중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에서 진행된다. 수출컨소시엄은 국내 사전 준비, 현지 전시회 및 상담회 파견, 바이어 초

청 상담회 등 3단계로 구성된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된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컨소시엄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세우고 정부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주력시장에서는 성과 확대를, 신성장동력에서는 맞춤형 전략으로 신규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장길환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현장경영 본격 돌입

장길환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이 5일 취임식 없이 바로 현장경영에 나서며 지역 기업과의 소통 강화에 힘쓰고 있다.

장 본부장은 이날 전북 정수군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주)한우물을 방문해 생산 공정과 제품을 직접 살펴보고, 기업의 사업계획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논의하며 여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발휘했다.

1971년 정수 출신인 장길환 본부장은 2020년 중화산동지점장, 2021년 정수군지부장, 2024년 여신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장 본부장은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성숙 단계까지 맞춤형 자금 지원이 가능한 '생애주기 금융 솔루션'을 도입해 지역 기업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며, "기업 여신 전문성을 높이고 통합 컨설팅이 가능한 RM 인재를 육성해 전북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북 특화 산업과 미래 먹거리 분야 우량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흔들림 없는 지역 금융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 "겨울철 시설감자 이렇게 관리하세요"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시설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핵심 관리 요령을 공개했다.

시설감자 재배 시 겨울철 저온과 폭설에 대비한 보온 대책과 불철 고온·다습 환경에 따른 환기 관리가 필수다.

먼저 1~2월 감자 씨이 트고 잎줄기가 자라는 시기에는 시설 내부 온도를 5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온도가 낮아지면 감자 생육이 억제되고, 영하로 내려가면 얼어버려 잎줄기 고사(인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 하우스에서 수막재배를

하거나 내부에 비닐 터널을 설치해 보온을 강화해야 한다.

폭설로 인한 하우스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눈을 제때 치우고, 눈 녹은 물이 시설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를 미리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2월 하순부터 3월에는 낮 기온 상승에 따른 시설 내부 온도 상승으로 잎줄기 고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는 측면 비닐을 열거나 환기팬을 가동해 내부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적절한 환기는 고온 피해를 막고 과습에 따른 감자역병 발생도 예방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일 본부 연금홀에서 2026년 시무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국민연금공단 시무식... '모두가 누리는 연금' 실현 집중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일 본부 연금홀에서 2026년 시무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주 이사장과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임 부서장 임명장 수여와 신년사가 진행됐다.

김성주 이사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1,126만 명의 국민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했으며, 매일 742만 명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등 공단이 국민 노후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6년을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해로 규정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실현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및 책임투자 병행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 △인공지능 대전환 선도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항상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